

II. 廣州分院의 歷史的 背景

1. 分院의 設置와 運營

1) 分원의 성립

조선건국 이후 왕실에서는 필요한 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經國大典』에 명시된 바와 같이 司饗院이 왕실 자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를 운영하였다.¹⁾ 사용원은 왕실소용 자기와 공납자기의 제작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고, 경기도 광주에 자기제작소인 분원을 두었다.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 설치된 이유는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한강을 통한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주는 경상도 고령 1곳, 상주 2곳과 함께 상품 자기소가 있었던 곳으로 지리적, 역사적인 장점을 지닌 곳이었다.

분원은 설치시기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²⁾ 1467년(世祖13)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면서, 궁중의 식사와 잔치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기구로 확장되었고, 그 후 1469년(睿宗 元年)에 편찬된 『經國大典』 工典에는 사용원 소속으로 380명의 沙器匠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朝鮮朝廷이 官窯를 만들고 왕실과 관청용 백자의 제작을 본격화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설치시기는 대략 1469~1470년 전후로 좁혀졌으며 분원 설치를 중심으로 도자기의 상황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최근에 분원 성립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세조 13년(1467) 4월 사용방에서 사용원으로 개칭하면서 녹관을 둔 점, 예종 원년(1469) 1월~3월에 완성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이미 상품 자기소가 사리진 점, 예종 원년 6월 공조판서 양성지의 상소 가운데 도자기가 공납품으로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의 사실에 의거하여 1467년 4월에서 1468년 12월 사이에 조선요업이 관요체제로 진입했음을 주장했다.⁴⁾

1) 『經國大典』, 事典 京官職 司饗院條.

“掌供御膳乃關內供饋等事”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1年(1389) 己巳 12月 壬寅

“司饗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2) 정양모는 『李朝陶磁の編年』에서 사용원의 임무를 밝혔고, 윤용이는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1)」에서 분원 가마터로부터 수습한 도편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분원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정양모는 선조 3년(1570) 앞 어느시기, 윤용이는 구체적인 논거 없이 16세기경이라고만 각각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은 「분원성립 시기에 관한 소고」에서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기구가 확장되는 세조 13년(1468)과 380명의 자기장이 사용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국대전』공전이 완성되는 시기가 1469년이라는 사실을 들어 사용원의 분파 관청으로서의 사용원의 분원은 1469년 전후(혹은 1469~1470년 전후라도 무방함)성립되었을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강경숙, 『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399~407 참고).

3) 金英媛, 『朝鮮前期陶磁의 研究—分院設置를 中心으로』(學研文化社, 1995); 동저「세조~성종년간의 분원의 설치와 도자양식의 변천」, 『美術史論壇』2 (한국미술연구소, 1995) 참고.

4)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104~110 참고.

2) 분원의 운영과 변천과정

예종 원년(1469)에 반포된 『經國大典』工典 京工匠 조에 따르면 사옹원에 소속된 380명의 사기장이 백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옹원 소속의 사기장은 당시 지방에서 비교적 질이 좋은 자기를 제작하던 장인을 선별하여 경공장에 편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기장의 수로 미루어 광주에 분원이 설치된 초기부터 官御用자기를 대규모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380명의 사기장이 분원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조선시대 초기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인조 3년(1625) 『承政院日記』에는 “戶와 奉足を 합하여 1140명이던 분원의 사기장이 해마다 핑계를 대고 도망하여 겨우 821명만이 남아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기장의 운영은 分三番入役制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140명이 정원이었던 사기장의 수가 17세기 전반에는 821명으로 줄었고 19세기 후반에 분원의 규모와 규정을 기록한 『分府院報贍』에는 총인원이 552명으로 되어 있어 분원의 인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원의 제작활동 기간은 成俔의 『慵齋叢話』에 “매년 사옹원 관리를 파견하여 봄부터 가을 까지 (자기 만드는 일을)감독하고 제작하여 御府에 수납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해동기부터 결빙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작활동에 따른 관리는 종8품인 奉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한 명이 자기의 제작이 있을 때마다 분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를 번조관 혹은 분원낭청이라고 불렀다. 봄부터 가을까지 분원에서 제작되었던 자기의 수량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후반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六典條例』에 따르면 특별한 행사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別燔의 제작량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경우 1327죽(竹, 1죽은 10개), 즉 13,270개였다.

분원에서 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인 백토의 공급이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시대 초기의 백토 산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세기인 1530년(중종 25) 『中宗實錄』에는 “자기를 만드는 白粘土는 이전에 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썼지만 지금은 楊根에서 파다 쓴다”고 적고 있으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는 양구, 봉산, 진주, 선천, 충주, 경주, 하동, 곤양 등지에서 상황에 따라 채취하였음이 『承政院日記』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18세기 중반인 1746년(영조 22)에 완성된 『續大典』工典 雜令條에는 “사옹원 번조사기의 원료로는 광주, 양구, 진주, 곤양 등지의 백토가 가장 적합하다”는 기록이 있어, 분원이 설치되었던 광주에서도 질이 좋은 백토가 채취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분원은 필요한 땔나무의 조달을 위하여 숲이 울창한 지역을 조정으로부터 분할 받았고 여기에서 燔木을 채취하여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이곳이 주로 광주지역에 해당한다. 분원은 연료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략 10년 정도를 주기로 대개 광주 내의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전하였다. 분원이 한 번 설치되어 땔나무를 채취한 곳은 다시 무성해질 때까지 비워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그곳에 분원을 설치하고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숙종대부터는 火田民이 유입되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면서 화전으로 개간되어 황폐화되는 지역이 넓어졌으며, 이 같은 상황은 분원의 이동과 함께 18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1752년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현재의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켜, 나무를 운반해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운영방법은 분원이 민영화되는 1884년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시대 백자는 크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前期와 中期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752년 분원이 이동을 멈춘 후, 특정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시점을 後期로 분류하기도 한다.⁵⁾

(1) 전기(15~16세기)

1467~1468년 사이 왕실과 관청용의 백자를 전담하여 제작하는 司饗院의 分院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면서 백자의 질·형태·제작체계 등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시기에는 상감백자와 함께 담청백색의 순백자가 제작되는 한편, 중국 명나라의 영향으로 눈처럼 희고 질이 좋은 순백자와 청화백자를 본격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지로는 우산리, 도마리, 변천리, 무갑리, 오전리, 학동리, 귀여리 등지가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요지에서는 굽바닥에 ‘天·地·玄·黃’의 글자가 대접이나 접시 등의 굽바닥에 새겨진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16세기 후반에는 관음리, 대쌍령리, 곤지암리, 무갑리, 열미리, 쌍동리, 산이리 등에서 제작을 했으며, 일부 철화백자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접시나 대접 등의 굽바닥에 ‘左·右·別’ 등의 글자가 적힌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전기에는 퇴촌, 중부, 초월면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마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제작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관요설치 직후 백자의 제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마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2) 중기(임진왜란 이후~금사리)

중기는 전기와 달리 광주와 도척면에서 가마의 점유율이 높다. 송정리와 탄벌리, 유정리와 상림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17세기 전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며, 이전과는 다른 제작상황을 보인다. 청화 안료를 구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한 철화백자가 주로 제작되었으며, 색도 회백색을 띠는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대접과 접시 등 일상생활용 그릇이 주로 제작되었으며, 그릇의 종류도 이전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정지리(1598~1605), 탄벌리(1606~1612전후), 학동리(1613~1617전후), 상림리(1631~1636전후), 선동리(1640~1649)등이 당시의 제작지인데, 이중 선동리에서는 그릇 밑바닥에 ‘庚辰右’나 ‘己丑’ 등의 글자가 적힌 파편이 발굴을 통해 출토되어 10년을 주기로 분원이 이동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에도 대체적으로 이전의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제작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회백색의 백자를 대신하여 우윳빛과 같이 흰색의 백자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송정리(1649~1653전후), 유사리(1660~1664전후), 신대리(1665~1676), 지월리(1677~1683년 이후) 등이다. 이들 17세기 백자요지에서는 공통적으로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은 예가 발견되며, 바닥에는 입자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예가 대부분이다. 철화의 장식소재로는 난초, 운룡, 초화 등이 많다.

18세기 전반에는 백자의 제작이 급속히 발전하여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백자문화가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궁평리, 오향리, 금사리(1726~1751) 등에서 제작활동을 벌였으며 대체적으로 우윳처럼 흰빛의 유색을 띠며, 굽의 높이가 다소 낮고 직립한 형태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진다.

5) 김영원, 위의 책, pp.42~48 참고. 조선시대 도자기의 편년과 시기구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체로 분원의 설치, 임진왜란, 분원리로의 분원 정착, 분원의 민영화와 같은 도자기의 양식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정치, 사회, 제도적 변화를 기준으로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임진왜란과 분원리로의 분원 이전을 기준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3) 후기(분원리 고정)

18세기 후반에는, 그동안 광주 내에서 백자제작에 필요한 땔나무를 구하기 위하여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하던 분원이 1752년부터 남종면 분원리에 정착하였다. 18세기 말엽부터는 분원리가마 특유의 담청백색을 보이는 백자가 제작되었다. 1883년 이후 분원이 민영화되어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조선왕실의 몰락으로 왕실백자의 제작전통이 사라지고, 일본에서 제작된 倭沙器의 유입으로 경쟁력을 잃은 분원이 제작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2. 分院調查略歷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 남아있는 분원은 이른 시기부터 수차례 가마터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최근에는 조선관요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분원조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⁶⁾

1) 지표조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의해 1981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군 일대 전체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185곳의 가마터가 보고되었다. 광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가마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마터의 위치·분포범위·유물의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가마의 분포도가 작성되었으며, 일부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2년에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관음리 등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가마터의 구체적인 범위와 현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1997년에도 광주군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1985년 사적 314호로 지정한 이후 새로 90여기의 요지(도합 289개소)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 백태청자의 제작시기가 송정리요 시기까지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한 점, 각 요지별·시기별 번조법의 변화를 정

■ 지표조사

조사연도	조 사 지 역	조 사 기 관	보 고 서
1981	경기도 광주 전체 지표조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白磁陶窯址』, 1986
1992	경기도 광주 일부 지표조사	해강도자미술관	『廣州의 白磁窯址(Ⅰ)』, 1992
1997	경기도 광주 전체 지표조사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 1998·2000
1999	경기도 광주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6) 강경숙, 앞의 책, pp.50~54; 전승창,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陶器)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2003. 4), pp.79~107;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廣州市, 『광주 조선백자 요지 수집 백자파편 분석 보고서』(2003), pp.11~13 참고.

리한 점, 상림리요를 비롯한 여러 요지의 운영시기에 대해 출토 파편이나 요지의 중첩상황 및 문헌 전거를 근거로 하여 고증한 점, 출토 파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 등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 광주군과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광주군 일대의 문화유적과 전통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자분야는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의 조사결과 이외에 남종면 분원리 3곳, 광주읍 목현리 3곳 및 장지리 1곳, 도척면 추곡리 3곳에도 가마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발굴조사

1964~196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광주군 도마리 백자가마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마리에서는 모두 4기의 가마가 운영되었으며 운영시기는 ‘乙丑八月’ 음각명 사각봉과 청화문양 및 기타 도자양식에 근거하여 1505년 전·후시기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교란된 퇴적층 수습 도편을 평면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성이 있다.

1985~198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광주군 중부면 번천리5호와 선동리2·3호 일대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번천리 5호 백자 가마터는 고급 백자를 생산한 중심 가마는 아니었지만 연실등요의 구조와 작업장이 발굴되었고 또한 嘉靖33年銘墓誌片이 수습되어 1554년에 제작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었고, 이를 통해 16세기 중엽 광주 관요의 요업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선동리 백자가마터는 1640~1649년까지의 10년분의 干支가 새겨진 도편과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철화백자 도편이 수습됨으로써 17세기 관요의 요업 상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선동리 3호 가마는 계단식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어 가마 구조 연구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1992년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9호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5세기 후반~16세기 초기 경으로 추정되는 우산리9호의 발굴 결과는 분원 중심요의 양상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출토 도편에는 天·地·玄·黃의 명문과 십여 점의 청화백자편이 수습되어 분원 가마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앙 관요인 번천리5호, 선동리, 우산리9호 그리고 지방 백자로는 군포, 산본, 장성 대도리 등의 백자 도편들을 모두 실음으로써 관요 백자와 지방 백자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1993년에 광주 우산리의 천진암 성역화를 위한 천주교 건물건축으로 인해 매몰된 가마터를 확인하기 위해 해강도자미술관이 이 일대의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가마 자리의 확인과 도편이 일부 수습되었는데 도편 중에는 ‘丙用’이라는 글씨가 백자와 청자편에 새겨있어서 15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가마로 추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1997년에도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광주 건업리 골짜장 진입도로 건설 예정지에서 발견된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조사결과 가마는 이미 아궁이와 굴뚝등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출토유물의 양상을 통해 가마 운영시기는 15세기 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해에 해강도자미술관은 우산리 17호 백자요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우산리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던 가운데 발견된 가마에 대한 발굴로, 조사결과 아궁이와 소성실이 잘 남아 있는 15세기 백자가마가 확인되었다.

1998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번천리 5호와 연계하여 인접한 번천리 9호에 대한 학술발굴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가마 2기와 양질의 16세기 분원백자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청화백자가 다량 출토되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2001~2002년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선시대 마지막 분원이 있었던 분원리 분원초등학교지역이 발굴조사되었다. 학교 입구 사적지에서 3기의 가마가 발견되었으며,

학교 뒤편 폐교지에서는 다량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친 다양한 백자와 청화백자가 출토되었다.

2004년에 조선관요박물관에 의해 광주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 내 송정동 일대의 시굴과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송정동 일대에 분포한 백자가마들의 운영 및 생산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2기의 백자가마터가 확인되었다. 6호 요지 옆에 폐기물 퇴적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5호 가마의 경우 비교적 상태가 잘 남아있다. 송정5호에서 己丑(1649년), 庚寅(1650년), 辛卯(1651년), 송정6호에서 庚寅(1650년), 壬辰(1652년)의 명문 파편이 수집되었다. 가마의 구조와 생산품 분석을 통해 선동리에서 이어지는 조선중기 분원의 요업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발굴조사

조사연도	조 사 지 역	조 사 기 관	보 고 서
1964~1965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국립중앙박물관	『廣州君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1號窯址』, 1995
1985~1986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번천리 선동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번천리5호·선동리 2·3호-』, 1986.
1992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附 牛山里 9號窯址發掘調査報告』, 1993
1993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해강도자미술관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 1995
1997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해강도자미술관	『廣州 建業里 白磁窯址-建業里 2號가마 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0
1997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해강도자미술관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Ⅱ)-17호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999
1998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번천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번천리9호 조선백자도요지 확장시굴조사』현장설명회 회의자료, 1998
2001~2002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 백자 도요지 발굴조사』현장 설명회 회의자료, 2001·2002
2004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조선관요박물관	『광주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송정동 5·6호(발굴), 송정동1·4·8호(시굴)』, 2004